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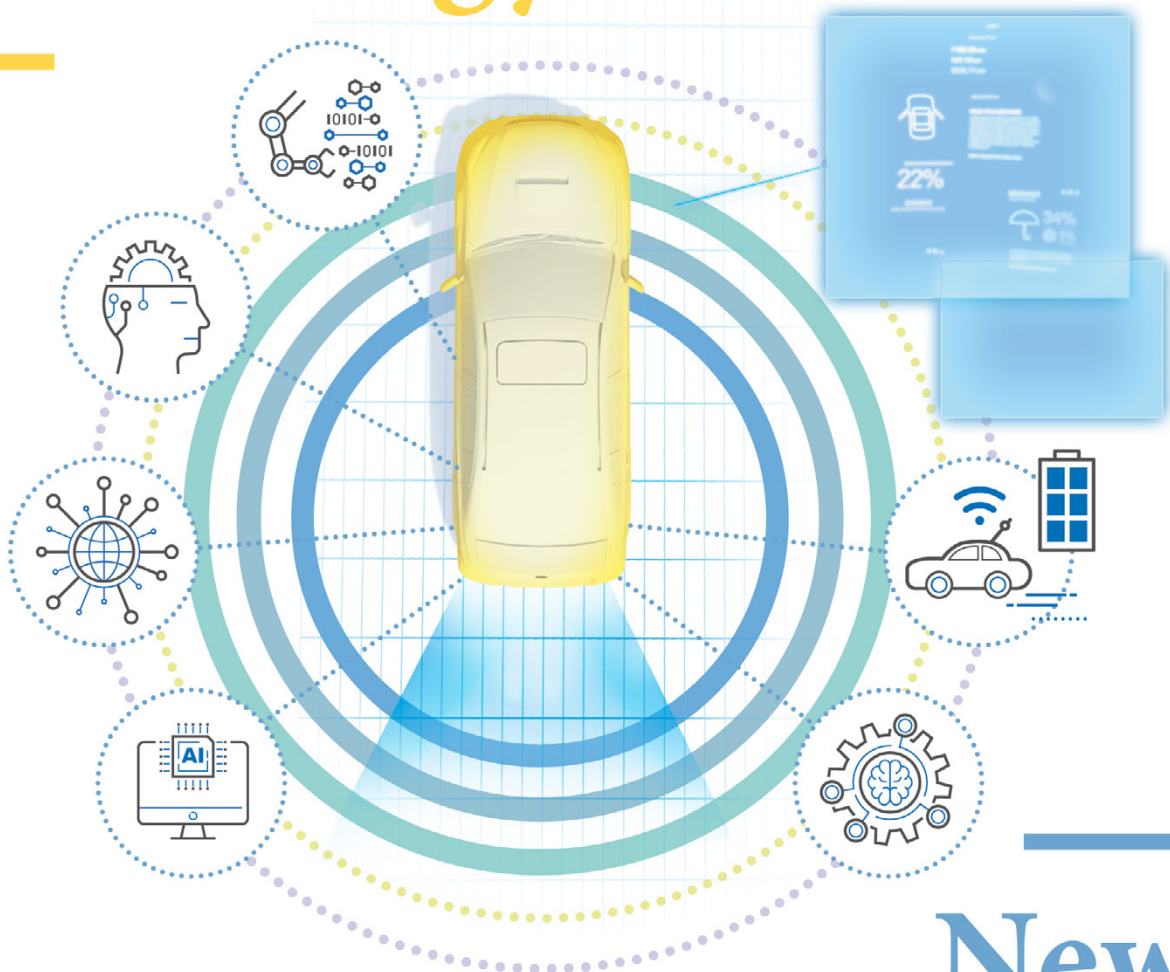
Vol.021

SUNGWOO
HITECH
MAGAZINE

별을
쏘다

2020 + Spring

New Technology



New Products

CONTENTS

Vol.021 2020+SPRING

SUNGWOO
HITECH
MAGAZINE

04

NEW YEAR'S ADDRESS



12

SUNGWOO FAMILY



18

EDUCATION



34

CHALLENGE SUNGWOOD



04 NEW YEAR'S ADDRESS

▶ “신기술 신제품”을 향한 도전과 혁신,
2020년에도 이어갑시다!

07 ISSUE & NEWS

▶ 성우하이텍 단신

10 2019 TOP NEWS

▶ 2019년 성우하이텍을 빛낸 10대 뉴스

12 SUNGWOOD FAMILY

▶ “A whole new world~”
2020년에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예요
▶ 따뜻한 인사로 응원하는 새로운 날
- 2019년 정년퇴임식

18 EDUCATION

▶ 국가대표 성우하이텍을 꿈꾸다
2020년 신입사원 “성우는 달라!”
▶ ‘보스’가 아닌 ‘리더’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 2019년도 승진자 교육

28 TOGETHER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 공유
교육용 표준 업무 영상 제작

32 SAFETY

▶ 반복된 훈련을 통해 365일 안전한 성우하이텍을!

34 CHALLENGE SUNGWOOD

▶ 부산만의 매력을 만끽하다
가을을 수놓은 건각들의 축제



스마트폰으로
성우하이텍 홍보동영상을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성우하이텍 사가(社歌)를
만나보세요.

New technology New products

첨단소재를 활용한 '차체경량화'

전기차 배터리 팩 개발로 실현하는 '미래형자동차'

라이다와 열화상카메라 기술 개발로 '자율주행차 선도'

신기술을 적용한 성우하이텍의 신제품들이

자동차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36

NEW SUNGWO



38

WORLD WIDE



46

GOING



52

SOCIAL CONTRIBUTION



36 NEW SUNGWO

- ▶ 100도씨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 성우혁신사관학교 3기 수료

38 WORLD WIDE

- ▶ 우리가 디디는 걸음걸음이 '갈'이 되기를
- 성우하이텍 북미사무소

42 SUNGWO PEOPLE

- ▶ 창단 13년, 우승 트로피를 안다
▶ 스트라이크처럼 짜릿한 '우승'의 맛!

46 GOING

- ▶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이색 체험, 레저스포츠
'서바이벌게임'

52 SOCIAL CONTRIBUTION

- ▶ 올해도 "성우댁" 덕분에 푸근한 연말
▶ 착한이웃 나눔 냉장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또 하나의 큰 기쁨

57 EVENT

- ▶ 페이퍼토이로 만드는 슈퍼 히어로

별을
쏘다

발행일 2020년 2월 7일 (통권 제21호) 발행인 이명근 사보기자 강승호, 김도형, 김태우, 김태훈, 남창식,
문해준, 박노실, 박은혜, 신민환, 이수승, 이승욱, 정영화, 최성욱, 최수영 (가나다순) 발행처 성우하이텍
www.swwhitech.com (인사정보사업본부 Tel. 070-7477-6233) 기획 및 디자인 미디어줌 (Tel. 051-623-1906)

“신기술 신제품”을 향한 도전과 혁신, 2020년에도 이어갑시다!

Let's continue the challenge and innovation
towards new technology and
new products in 2020!



성우하이텍 임직원 여러분!
2020년대의 첫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 돌파구를 마련하고
10년 후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지는 원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회사 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주신
여러분들의 공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Most esteemed executives and staff members,
The first year of the new decade is upon us.
I hope that this is the year we find a breakthrough in these rapidly changing times
and learn the wisdom to look beyond to the next ten years.
I express my deepest appreciation for your dedication last year
for the growth of our firm.

신기술

“신기술 신제품”

성우하이텍은 업계에서 선도적으로 R&D센터(연구소)를 설립하여
연구하는 문화를 정립해왔습니다.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R&D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려왔고,
연구로 인한 신기술과 연구를 장려하는 문화는

성우하이텍의 역사 속에서 내우외환의 파고가 있을 때마다 새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자율주행, 대체 에너지, 공유경제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려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는 축적된 연구를 기반으로 한 신기술 신제품으로 한층 더 도약할 것입니다.

21세기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의 무한한 상상이 현실화되어

오늘날 스마트폰 시대를 열면서 인류의 삶을 한 단계 더 진보시킨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무수한 별처럼 쏟아지고,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도전과 혁신을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나 빛나는 아이디어를 통하여 성우하이텍뿐만 아니라

인류 사회의 발전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새롭고 참신한 기업,

스스로 노력하는 성실한 사원,

서로 사랑하며 아끼는 우리 회사

새 시대에 우리 사훈을 다시 한 번 되새겨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세로 도전하는 기업,

도태됨이 없어 늘 깨어 있는 자세로 자기계발에 몰두하는 임직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여 소통에 막힘이 없는 문화

성우하이텍은 2020년에도 이 가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성우 가족 여러분!

시대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전진합시다.

우리는 잘 헤쳐 왔고,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굳건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실과 지혜를 상징하는 쥐의 해인 경자년,

근면함과 총명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1월 성우하이텍 회장

이명준

신제품

New Technology

“New Technology, New Products”

We have fostered a culture of establishing a R&D center for research to lead the industry. Even during difficult times, we have consistently increased our R&D investment. This culture of encouraging research and new technology has become the kindling of hope during times when we faced trials and trepidations in the history of Sungwoo Hitech. We will take a leap forward with our new technology and products based on accumulated research in this uncertain global automobile market filled with challenges from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utonomous vehicles, alternative energy and sharing economy.

The icon of 21st century's innovation, Steve Jobs and his infinite imagination opened the age of smartphones and enhanced humanity. We, too, must never stop our challenges and innovations until our ideas shine like infinite stars and our imagination becomes a reality. We will not spare our support so that anyone and any idea can be of contribution to not only Sungwoo Hitech but to humanity.

A corporation that is always new and fresh
Dedicated workers who are self-driven,
A company that loves and cares for one another.
Let's remind ourselves of our corporate motto in this new age.
A corporation that does not settle in the present but challenges it,
Executives and employees that focus on self-development without falling behind.
A culture of respect and consideration that fosters open communication in a free atmosphere.
Sungwoo Hitech will safeguard these values in 2020.

Dear Sungwoo family!
Let's march forward together to be at the head of our times.
We have done well, and I faithfully believe that we will continue to do well.

This is the Year of the Rat, which symbolizes diligence and wisdom.
I hope this spirit of diligence and brilliance fills your homes with peace and happiness.

Chairman Lee, Myung-Keun



New Products

01. 2020년도 시무식 개최

당사는 1월 7일, 서창공장 대강당에서 2020년도 시무식을 개최하였다. 이명근 회장은 “신기술 신제품”을 2020년의 슬로건으로 선포했다. “위기를 기회로”(2018년), “창조적 신기술”(2019년)의 연장선에 있는 올해의 슬로건은 2020년에는 신기술 연구에 끊임없이 매진하여 혁신적인 신제품을 세상에 내보이겠다는 성우하이텍의 의지가 담겨 있다.

2020년 자랑스러운 성우인상은 코일센타팀 최정규 차장과 슬로박성우 노혁수 사원이 수상하였다. 최 차장은 프레스 생산성향상 TFT 일원으로 국내시범 프레스라인 SPM 97%, SPH 92%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고, JX1 /RG3 차종에 국내 최초 알루미늄 도어 프레스 TRY OUT의 원활한 대응으로 안정적인 도어생산을 진행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노 사원은 기아차 슬로박에서 주관한 제 1회 협력사 최우수 사원으로 선정되어 회사의 명예를 드높였고, QL/TL RR FLR 수동 CO₂ 용접 공정을 자동화로 변경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외에 원가절감, 성과포상건수, S-Thanks 건수, 개선활동 등을 바탕으로 한 해 동안 대내외적으로 모범이 된 50명에게 모범상을 수여하였다.

관련 기사

4p



02. 인도 SHAP(Sungwoo Hitech AP Pvt), 더데반다 지역 어린이 후원 활동



성우하이텍 인도 SHAP에서는 인근 더데반다(Duddebanda) 지역 MMP초등학교의 인도 독립기념일(8월 15일) 행사에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마을 대표, 지역 파출소장, 학교장, 주민들이 참석하였고, SHAP에서도 2019년 설립 이래 처음으로 참여하여 100여 명의 학생들에게 가방, 책, 펜, 스포츠용품 등을 제공하였다. 아이들과 주민들의 환한 얼굴을 보며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성우하이텍은 글로벌 업체로서 세계 곳곳의 지역 사회에 이바지하여 지역민들과 하나 되는 기업이 될 것이다. 특히, ‘교육’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서 기업, 지역, 국가,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03. 2019년 겨울愛(애) 희망饌(찬) 김장나누기 행사 개최

11월 21일 소주동행정복지센터에서 “2019년 겨울愛(애) 희망饌(찬) 김장나누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지역 결식우려아동, 다문화가족 및 이주노동자, 노인무료급식소에 정성이 담긴 김장을 제공하고 자 마련한 이 행사는 성우하이텍이 2012년부터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성우 가족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들과 김장을 담그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성우하이텍의 진심을 담았다. 이날 담근 배추김치 1,600kg을 웅상지역 관내 곳곳에 전달하며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성우공동모금’에서 지급하였다. ‘성우공동모금’은 성우 임직원 1,000여 명이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만든 기금으로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해 후원하고 있다.



관련 기사
52p

04.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12월 3일 서창공장 대강당(정관, 장안, 지사, 수원, 핫스탬핑, 아산은 화상연결)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였다. 김주희 강사의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을 통해 성우인들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던 성희롱 행동이나 발언을 생각해볼 수 있었고, 이런 교육은 성우하이텍이 양성 평등에 이바지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 이경미 강사가 진행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진행되었다. 성우인들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실례되는 행동/언어를 배울 수 있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주)성우하이텍은 성별과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가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직장이 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

05. 창주성우, 북경현대 2019년 우수협력사로 선정



창주성우가 북경현대 2019년 우수협력사로 선정되었다. 창주성우는 2020년 1월 3일 북경현대 4공장 대강당에서 열린 북경현대 4공장 시무식에서 우수협력사로 선정되어 상패를 받았다. 창주성우는 2016년 YC 차종 양산 이후 북경현대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우수협력사 수상은 성우하이텍의 우수한 기술력 및 품질을 인정받은 결과로서 의의가 있다. 지난해 3월 창주성우 김종범 상무가 북경현대 우수품질상을 수상한 데 이어 우수협력사로 선정된 창주성우는 올해도 탁월한 기술력과 우수한 품질로서 고객사에게 기여할 것이다.

06. 공창욱 전무, 석탑산업훈장 수훈



성우하이텍 공창욱 전무(금형개발사업본부장)가 제56회 무역의 날에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다. 공창욱 전무는 2010년부터 성우하이텍에 재직하며, 국내외 금형제작 관리 및 수출업무를 총괄해 왔다. 2015년부터 금형개발사업본부장을 맡아 해외기술 벤치마킹 및 신기술, 신공법 적용으로 알루미늄 무빙 차체 부품을 개발하였고, 해외 선진 금형 제작기술(빌드업 프로세스 적용)을 도입하여 알루미늄 배터리 커버 제작 기술력을 확보하였으며, 글로벌 업체 프로젝트 수주 등을 통해 국가 기술발전과 무역진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이 이루어졌다.

07. 2019년 정년퇴임식 개최

관련 기사

16p



12월 27일, 서창공장 6층 대강당(아산성우하이텍 화상 연결)에서 12명(아산성우하이텍 2명 포함)의 정년 퇴임자들에 대한 기념행사를 가졌다. 평생을 성우하이텍을 위하여 열정과 헌신으로 책임을 완수해온 조영식 반장(사상반), 권대경 기장, 김복자 기장, 주문학 기장(이상 조립1반), 임재현 기사(조립2반), 조영계 기장, 주옥주 기장(이상 조립3반), 이상두 기장, 정광열 기장(이상 지사조립계), 신두환 기장(코일가공반), 이해룡 기장(아산 품질보증반), 임갑병 前 아산노조위원장 등 동료, 가족, 친지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함께 했던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08. 아산성우하이텍 축구단 온양신문사기 직장인축구대회 '우승'

관련 기사

42p



제23회 온양신문사기 직장인축구대회가 10월 26일, 27일 아산신도시물환경센터 축구장에서 개최되었다. 온양신문사가 주최하고 아산시축구협회에서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12팀이 출전, 4개조로 나눠 경기를 진행했다. 2015년 제19회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아산성우하이텍 축구동호회 아성FC는 1승 1무로 무난히 4강에 진출하여 준결승전에서 두원공조를 맞아 팽팽한 접전 끝에 1대0으로 물리쳤다. 전통의 강호 다스와 대망의 결승전에서 후반 막판 극적인 골을 끝까지 지켜 2대 1로 승리하며 첫 우승의 감격을 안았다. 개인상 부문에서는 아성FC 회장 정기수 기장이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하며 기쁨을 더했다.

2019년 성우하이텍을 빛낸 10대 뉴스

국내·해외 할 것 없이 본인의 자리에서 힘차게 달려온 2019년 한 해
성우인 모두의 땀으로 2019년 역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성우하이텍의 한 페이지를 채운 자랑스러운 순간들을 만나봅니다. 🎉

1위

11.8%

EV 배터리 모듈 및 팩 케이스 수주(7월~12월)

- 2019. 7 LGC (RSA EV2020/ VOLVO MEP2) 2차종 Module Case 수주
- 2019. 9 HMC QZ FCEV(수소연료전지 트럭) 배터리 케이스 수주
- 2019. 9 LGC Module Case 시제품 공급 시작
- 2019. 11 KIA SG2 PHEV(니로 후속) 배터리 케이스 수주
- 2019. 12 HMC NEc 외 3차종 배터리 케이스 수주(중국)
- 2022. 4 폴란드 공장 RSA EV2020 양산 예정(총 매출액 600억 원 규모)
- 2022. 10 멕시코 공장 VOLVO MEP2 양산 예정(총 매출액 430억 원 규모)
- GMNA BEV3, BET 배터리 CASE 수주 추진(수주 시 100~1400억/년 규모)

폴란드	멕시코	스위스	한국	중국
RSA EV2020	VOLVO SPA MEP2	QZ FCEV	SG2 PHEV	Nec EV
LG 화학	LG 화학	HYUNDAI MOBIS	KIA HYUNDAI MOBIS	HYUNDAI MOBIS

2위

8.6%

무재해 달성 쿠폰 지급(1월)

- 포상주기(무재해목표 산정기간) : 2개월 단위
- 포상대상 : 무재해를 달성한 팀(반)
 - ▶ 안전사고 발생팀(반) 전체 / 안전수칙 위반자(개인) 미지급
- 포상품목 : 모바일 커피쿠폰
 - 사무직 : 10,000원(5,000원 권 2매)
 - 공정책임자 : 20,000원(5,000원 권 4매)
- 시행일자 : 2019.1.1부



3위

7.3%

RG3/JK1 EV T-CAR BIW 자체 조립/납품(2월/10월)

- 2019. 1 다중소재 접합기술 BIW 조립라인 구축(R&D 센터, SSPR / FDS / REW)
- 2019. 2 RG3 EV BIW 30톤 납품, 다중소재 접합/성형 요소기술 개발 (AI-다이캐스팅 / 압출, 복합소재-인발)
- 2019. 10 JK1 EV BIW 14톤 납품

< 주요 적용 신기술 >

SSPR : Special Self Piercing Rivet
FDS : Flow Drill Screw
REW : Resistance Element We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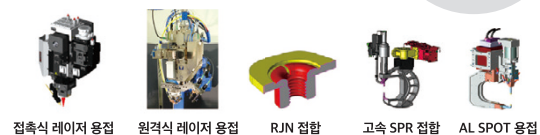
4위

6.8%

JX(제네시스 SUV) 알루미늄 도어 양산(12월)

- 2018. 12 알루미늄 도어 조립라인 입고
- 2018. 2 알루미늄 도어 조립라인 단독/연동 운전
- 2019. 6 알루미늄 도어 P1 공급
- 2019. 8 알루미늄 도어 P2 공급
- 2019. 12 양산 개시

< 주요 적용 신기술 >



5위

6.7%

중경성우 '올해의 우수협력사상' 수상(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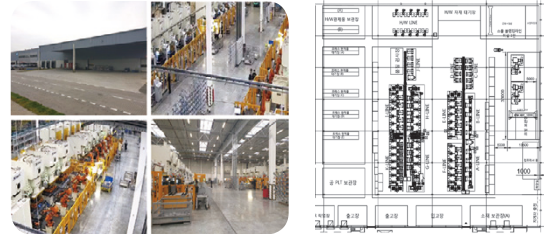


6위

6.6%

폴란드 공장 가동(중소형 프레스 10 Line)(5월)

2019. 5 폴란드 공장 가동 진행(중소형 프레스 10개 라인, 신규/이설)



7위

6.4%

GM 올해의 협력사상(SOY) 및 품질우수상 수상
(Supplier of the Year 5월, Quality Excellence Award 10월)

- 올해의 협력사상(Supplier of the year : 2018~2019(2년 연속))
- 품질우수상(Quality Excellence Award)



8위

6.3%

멕시코성우 품질 5스타 달성(5월)

- 2018. 9 품질5스타 도전
- 2018. 12 품질5스타 평가 결과 공지
- 2019. 5 품질 5스타 달성 현판식 진행



9위

5.7%

주 52시간 근무를 위한 PC-OFF 도입(8월) 및
신차 관련 부서 선택적근무시간제 운영(11월)

- 사무직 주 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4월)
-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를 위한 PC-OFF 솔루션(Net-Helper) 도입(8월)
- 신차관련부서에 한해 1개월 단위 선택적근무시간제 운영(11월)



10위

4.7%

GMNA C121(BOLT EV) 차체마미템 수주(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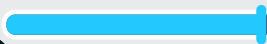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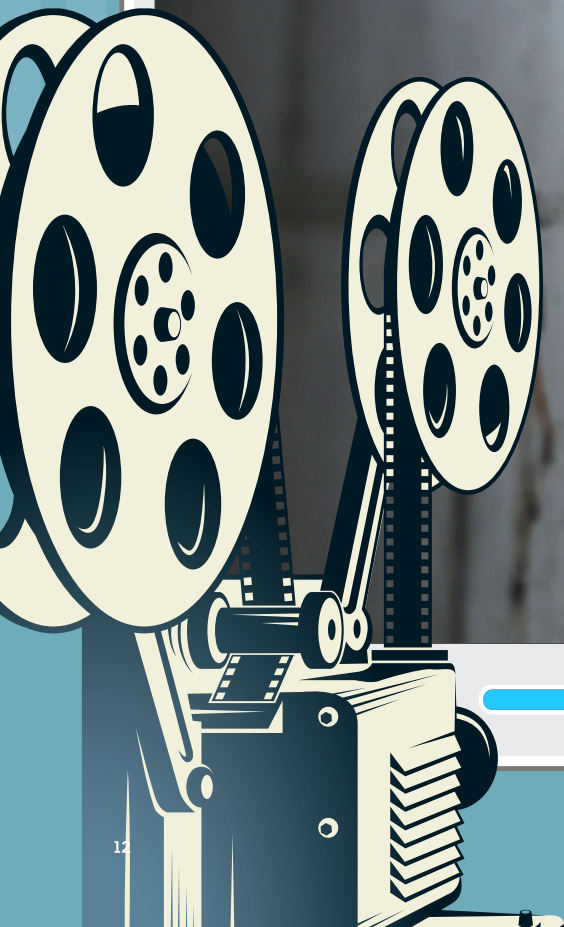


미시간주 GM미국 오리온공장
총 43품목 수주
(어퍼바디+언더바디)
2021년 05월 양산



“A whole new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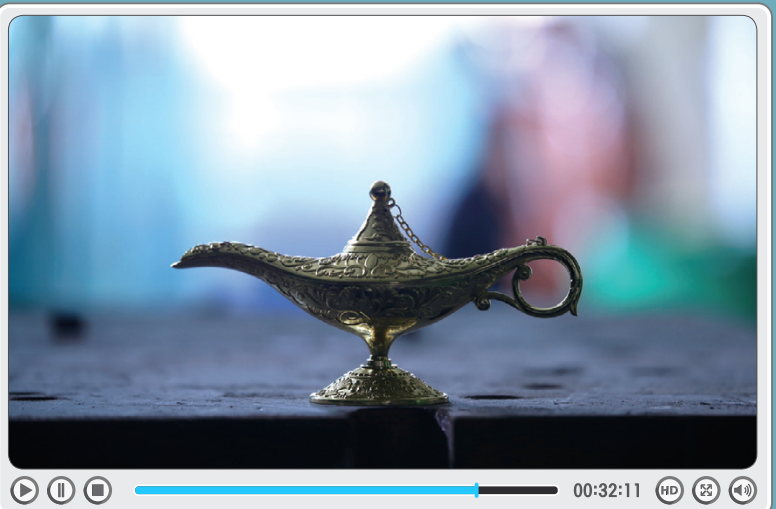
2020년에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예요



성우가 당신께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 거예요!

“빛나고 찬란한
아름다운 세상을!”

- ●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성우하이텍 전사 직원들의 새해 인사
촬영 현장을 찾았다.
반짝이는 아이디어, 유쾌한 재치,
톡톡 튀는 콘셉트로 무장한
2020년 성우인들의 새해 인사
촬영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자.



2020년 성우인, “소원을 말해봐”

각 본부별로 진행된 새해 인사 촬영에는 본부별 2020년의 목표를 담았다. 각 본부는 어떤 목표로 2020년을 맞이할까. 자세한 콘셉트를 잡아 세세한 부분까지 연출하며 열정적으로 촬영 준비를 해온 팀부터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어색하여 쭈뼛거리다 분위기 쇄신용 막춤(?)까지 펼쳐진 현장, 살짝 엿본다.



2020년은 우리 손 안에!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찍찍찍



용접 불량, 파트누락,
결품, 형상 불량,
크랙, 사양이중
다 비켜~!



손흥민처럼
빠른 드리블로
2020년
목표 완성!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생산성 향상! 신기술 개발!
가동률 향상!





2020년 한 해에는
‘덩실덩실~’
어깨춤이 절로 나는
일들만 가득하길!



카메라는
어색하지만
인사만은 착실히
^^;;

Happy
New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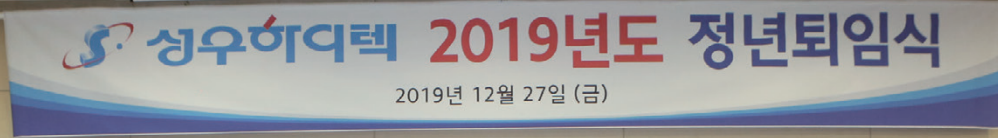
성우인이 성우인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새해 인사
“모두모두 행복한 새해 맞으세요!”

이렇게 촬영된 영상은 1월 7일
시무식 현장에서 전사 직원이 함께 감상했다.
평소에는 보기 힘든 동료들에게 보내는
성우인들의 따뜻한 마음.
현장 사진을 통해 전한다. 📷



날씨도 도와준
촬영 현장!
기를 모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따뜻한 인사로 응원하는 새로운 날

2019년 정년퇴임식



긴 마라톤의 결승선을 뚫으며

매년 12월 서창공장 대강당에서는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아쉬움과 기쁨이,
가끔은 눈시울 뜨거워지는 감동이
함께하는 현장, 바로 정년퇴임자들을
배웅하는 퇴임식이다.

올해는 화상 연결을 통해 함께한
아산성우하이텍 2명을 비롯하여
모두 12명이 감동의 순간을
기념하였다.

평균 8시간, 일주일 중 5일, 한 달 20일.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엔 제2의 가정이나 다름없다. 그곳에서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동료들은 또한 가족만큼이나 익숙한 사람들이다. 길게는 30년 이상을 한 직장장에서 보내온 퇴임자, 그래서 퇴임식 현장은 어느 행사와는 좀 다른 분위기를 띈다. 평생을 함께한 회사를 떠나는 당사자들은 애써 감정을 추스려 하지만 쉽게 감출 수 없는 아쉬움이 드러나게 마련. 가족들의 얼굴에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애써온 가장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비친다. 평소라면 쉽지 않은 감사의 말, 사랑한다는 표현도 이날만큼은 용기를 내게 된다. 퇴임식에 참가한 오늘의 주인공. 조영식 반장(사상반), 권대경 기장, 김복자 기장, 주문학 기장(이상 조립1반), 임재현 기사(조립2반), 조영계 기장, 주옥주 기장(이상 조립3반), 이상두 기장, 정광열 기장(이상 지사조립계), 신두환 기장(코일가공반), 이해룡 기장(아

산 품질보증반), 임갑병 前아산노조위원장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가족에 대한 뿌듯함, 가슴속에서 뜨겁게 차오르는 뭉클함, 그럼에도 감출 수 없는 아쉬움, 길고 긴 마라톤을 무사히 완주한 스스로에게 보내는 축하도 함께이다.

희망과 기대로 빛날 앞날을 응원합니다

권대경 기장의 우렁찬 “반갑습니다” 인사와 함께 시작한 정년 퇴임자들의 퇴임사는 열악한 환경에서 꿈과 희망을 일구었던 초창기 성우하이텍의 모습, 동료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울고 웃던 추억, 땀뿜 뭉쳐 함께 미래를 밝혀나가자는 당부까지 담고 있어 참석자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주었다. 이문용 대표이사 사장은 퇴임자 한 분 한 분 이름을 호명하여 추억을 되새겼고, 정든 직장을 떠나는 회한에 대한 위로와 함께 자유인으로서 제2의 인생도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날의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평생을 성우하이텍을 위하여 열정과 헌신으로 책임을 완수해온 퇴임자들. 성우하이텍 구석구석을 누비며 큰 힘이 되어온 베테랑들이 이제 현장을 떠나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야 하는 출발선에 섰다. 성우하이텍을 이끌어온 시간들이 자양분이 되어, 새롭게 펼쳐질 앞날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응원한다. 🌈



2019년 정년퇴임식



국가대표 성우하이텍을 꿈꾸다 2020년 신입사원 “성우는 달라!”

2020년 신입사원 교육 ‘2020년 신입사원역량개발과정’이 1월 6일부터 10일까지 경주 The K호텔에서 진행되었다. 신입사원역량개발과정에는 9월 시작한 ‘2020년 공개 채용’ 합격자 66명이 참여했으며, 성우하이텍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신입사원으로서의 패기와 열정을 확인한 시간이었다.





성우인, 그 벅찬 이름의 첫걸음

첫날의 첫 일정은 팀 빌딩. 저마다 긴장하며 첫날을 맞이한 만큼 신입사원들은 아직은 다소 얼떨떨하고 어색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성우하이텍의 비전과 현황을 이해하고, 성우인으로서 기본자질과 도전의식, 팀워크를 강화한 팀 빌딩 과정을 통해 비로소 '성우하이텍'이라는 한 배를 탄 동료로서 서로를 인식하고, 앞으로 이어질 교육 과정에 대한 저마다의 의지를 다졌다.

교육생들에게 큰 인상을 남긴 활동은 둘째 날 진행된 '기업경영구조와 조직의 이해' 시간이었다. 해당 교육은 경영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전사적 차원의 경영감각 채득 및 관리회계의 기초를 이해(경영계획, 구매, 생산, 판매, 결산까지의 일련의 기업 활동 흐름 이해)하고 기업구조와 기능, 협력의 가치를 인식하는 활동이었다. 팀별로 나누어 앉은 신입사원들은 수익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었다. 경영계획서 및 손익계산서를 실제로 작성해 보는 실습을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히는 한편



원가나 이익의 짜임새를 이해하고 회사의 이익 창출을 위한 스스로의 역할과 창의적 사고의 중요성을 인식한 시간이었다. 생산기술1팀 나준우 사원은 "기업 경영구조와 조직의 이해 경영시뮬레이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1등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했더니 손해를 너무 많이 보는 바람에 꼴찌를 했습니다. 이번 기회로 투자를 할 때 사전 계획이 중요하며, 경영진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하였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도종복 부사장(인사정보사업본부장)이 직접 교육 현장을 찾아 <성우의 역사와 미래>를 주제로 강의를 하였다. 도종복 부사장은 성우하이텍 42년의 역사를 소개하고 기업문화를 공유한 한편, 크나큰 변화가 시작되는 새로운 10년을 맞이하여 '창조적 신기술', '신기술 신제품'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신입사원들의

몰입도를 높인 다양한

참여형, 체험형 교육

그 외에도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신입사원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사명, 역량을 탐색해본 '미래 산업의 트렌드와 신입사원에게 요구되는 역량', TV 프로그램을 모티브로 하여 기업교육에 적용된 집단지성을 시뮬레이션해본 '집단지성을 활용한 문제해결 시뮬레이션', 인간관계의 중요성과 기본예절 및 태도를 익히고, 비즈니스 매너와 상황별 응대요령을 학습한 '조직 적응력 향상을 위한 관계역량과 비즈니스 예절' 등의 교육이 5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2020년 신입사원역량개발과정은 조직인 및 프로 직업인 육성, 기업 가치관 공유를 목적으로 대인관계 형성, 기업조직 이해, 업무 기초 지식/스킬, 열정과 활력 및 애사심 고취, 회사현황 이해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교육생의 참여와 몰입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형, 체험형 교육으로



운영되는 한편, 신입사원들의 학습동기와 정서 함양을 위해 학습도구 역시 적극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생들은 조직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수용적인 자세를 함양하는 한편 성우하이텍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공감하고, 신입사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창의와 성과를 기반한 도전적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근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 방법과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추 수 있었다.

2020 신입사원 교육 과정

- 목적 : 조직인 육성, 프로 직업인 육성, 기업 가치관 공유
- 대상 : 2020신입사원 66명
- 일정 : 2020.01.06.~2020.01.10.(입문교육)
2020.01.13.~2020.01.16.(직무교육)



트렌디한 콘셉트로 만난

‘Great Company

성우하이텍’

교육 마지막 날 일정은 서창공장 대강당에서 진행된 팀 프로젝트 발표였다. 최고의 고객만족, 신기술 신제품의 선봉으로서 성우하이텍을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만들어가겠다는 신입사원들의 포부를 담은 ‘국가대표’를 주제로 신입사원들의 아이디어가 빛난 자리였다. 첫 영상은 취업 준비생을 주인공으로 한 단편영화였다. 국내 자동차업계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 없이 직원들을 이끌어온 CEO의 경영철학에 공감해 성우지원을 선택한 주인공이 성우하이텍에 입사하는 과정을 담았다. 두 번째 발표는 2035년 미래를 배경으로 성우하이텍의 조직문화를 예상해본 ‘I&YOU’

였다. 최고의 기업문화를 가진 기업으로 선정된 미래 성우하이텍을 소개하는 뉴스 영상을 콘셉트로,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익명투표소’,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개인 휴식 시간’ 등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시대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방안으로서 스마트팩토리 운영을 배경으로 한 연극 ‘미운 우리 성우’가 진행되었다. 인기 프로그램을 모티브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기술을 받아들여야 함을 보여준 이 연극은 유머러스한 편집과 연출로 관객의 웃음을 이끌어내었다. 성우하이텍 50주년인 2027년을 배경으로 열화상 카메라, 라이다 등 성우하이텍의 신기술을 홍보한 영상과 현장 직원의 브이로그(VLOG)* 형식을 적용한 홈페이지 개선 방향 등이 선을 보였다. 올해 발표회는 뉴미디어를 활용한 트렌디한 콘셉트의 영상을 위주로 진행되어 새로웠다는 반응이다. 발표 도중 가끔씩 실수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발표회 자리에 참석한 성우인들이 큰 박수로 호응하며 용기를 북돋웠다.

이날 발표회를 함께한 이문용 대표이사 사장 역시 “교육 일정 짬짬이 오늘 발표를 준비하느라 애써준 신입사원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낸다. 중간에 조금씩 실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신입사원의 매력이 아닐까 한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과정 하나하나는 곧 성우하이텍이 국가대표로 자리매김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 올해의 신입사원들이 큰 몫을 해주리라 기대한다”며 신입사원들을 격려했다.

*비디오(video)와 블로그(blog)의 합성어로, 자신의 일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영상 콘텐츠

G R E A T C O M P A N Y 성 우 하 이 텍





신입사원들의 패기 찬 외침,

“성우는 달라!”

마지막 순서는 신입사원들이 4박 5일간 매일매일 연습한 성우하이텍 사가 제창 시간. 매년 신입사원들의 손끝에서 재탄생하는 새로운 느낌의 사가를 만나는 것도 큰 즐거움이다. 올해 역시 신입사원다운 패기와 발랄함이 담긴 편곡으로 발표회에 참석한 성우인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었다.

그렇게 이날의 행사가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한 순간, 익숙한 EDM(이디엠) 사운드가 강당을 울렸다. 지난해 대한민국을 흔들어놓은 <아모르파티> 리듬에 신입사원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재탄생한 가사를 입힌 곡으로, 강당이 순식간에 후끈 달아올랐다는 후문. 신입사원들은 흥겨운 율동과 함께 목청껏 노래를 부르며 각오를 다졌다.

향후 10년간 자동차산업은 이제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급변할 것이다. 그 새로운 10년의 출발점인 2020년, “국가대표 성우하이텍”을 이끌어갈 신입사원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

#

“기술력 1등 품질도 최고
혁신과 창의로 가득한 곳
신기술 신제품으로 나아가 자동차산업의 국가대표

자체는 기본 가능성 무한
세계 자동차시장 선도해
위기는 기회의 발판일 뿐이야
다가올 미래 두렵지 않아, 성우는 달라!”

#2020신입사원들이 말하는
2020성우하이텍 신입사원연수

“성우하이텍 신입사원 연수는 ()였다”

내가 성우인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환상적이었다
사랑이었다
재발견의 시간이었다
과거여행이었다
행복이었다
친구들과 가는 추억여행이었다
도전이었다
동기들과 함께 유익한 것을 배울 수 있어 행운이었다



2019년도 승진자 교육

‘보스’가 아닌 ‘리더’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리더십이란 무엇일까?

정동일 교수는 그의 저서 『사람을 남겨라』에서 리더십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구성원들에게 긍정적 영향력(positive influence)을 통해 자발적 협조와 추종을 불러일으켜 조직이나 부서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achievement of goals)하는 능력과 과정”

이와 같은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긍정적 영향력을 통한 구성원들의 자발적 협조와 추종

▶ 성과창출을 위한 방향설정과 실행



leadership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리더의 모습을 법제화한 측면도 있다. 성과창출과 목표달성을 위하여 강압적인 명령이나 심지어 폭언과 처벌 등 부정적 방법(negative manner)을 지양하고, 직원들과 진솔하게 생각을 공유하며 수평적 전달 방식의 대화를 하는 소통 리더십이 있는 리더를 시대가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자칫 소통만 강조하다가 성과창출과 목표달성이라는 방향키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 독단적이고 팍팍한 리더도 안 되고, 착한 사람 병(good guy syndrome)에 걸려 인기주의(populism)에 빠진 리더도 안 된다. **그래서 리더는 어렵다.** 결국 리더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도전과 자극을 통하여 성과를 달성하게 하는 '성과창출형 리더'이자, 직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발적 추종이 따르는 '사람 중심의 관리형 리더'로 거듭나야 한다.

2019년도 승진자 교육이 경남 통영에서 2차수에 걸쳐 진행되었다(1차: 9월 9일~10일, 2차: 9월 19일~20일). 교육을 통하여 숨 가쁘게 달려온 승진자들에게 힐링 시간을 제공하고, 리더로서 새로운 용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실행촉진 리더(부·차장), 소통 리더(과장), 실행 리더(대리)로 거듭나 성우하이텍의 별이 될 승진자들의 미래를 응원한다. 

BOSS VS LEADER

보스(boss)와 리더(leader)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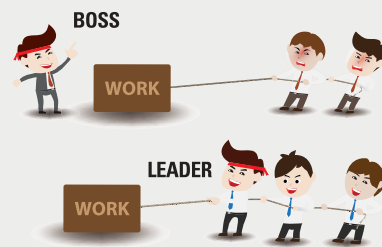
- **보스** : 실권을 쥐고 있는 최고 책임자.
- **리더** : 조직이나 단체 따위에서 전체를 이끌어 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
- ▶ 모든 보스가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다. 리더십에 대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계발한 보스들은 좋은 리더가 될 확률이 높겠지만, 그렇지 않은 보스는 그저 직급이 높을 뿐이다.

리더가 아닌 보스

- ▶ 명령하고 평가하기를 좋아한다.
- ▶ 조직을 움직이는 모티ベーション으로 '두려움'을 활용한다.
- ▶ 자신은 큰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말만 앞설 뿐 직접 나서는 경우는 드물다.
- ▶ 팀원들에게 대우 받기를 원한다.
- ▶ 미팅을 하거나 행사에 참여 시, 동석자의 '급'에 대해 민감하다.
- ▶ 최종의사결정권자가 자신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인식시키고자 노력한다.

좋은 리더

- ▶ 자신이 직접 일을 추진하고, 일이 잘 안되었을 때의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린다.
- ▶ 한 사람 한 사람이 조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열정을 불어넣는다.
- ▶ 자신의 대우에 신경 쓰기보다는 팀원들의 마음이 불편한 것이 없는지 살핀다.
- ▶ 팀원들의 아웃풋에 대해, 잘못된 로직을 지적하기보다는 말이 되게끔 다듬어준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 공유 교육용 표준 업무 영상 제작

8월부터 서창공장을 중심으로 팀별 표준점검 활동 영상 제작을 시작하였다.
한글/영어 자막 및 국가별 언어 더빙이 더해진 팀별 표준점검 활동 영상은
해외사업장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상황 ①

체코 오스트라바에 위치한 성우하이텍 체코 법인

생산관리팀에서 프레스 금형을 앞에
두고 교환 준비를 하고 있다. 자세한
금형 교환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순간이다.

#상황 ②

인도 첸나이의 성우하이텍 인도SSP

품질보증팀에 입사한 A 직원은 완성
품 출하 검사를 맡았다. 출하 검사 시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부분을 체크해
야 할지 교육이 필요하다.

#상황 ③

중국 베이징의 성우하이텍 북경법인

보전팀 직원들에게 윤활라인 점검 업
무가 할당되었다. 다소 복잡한 과정이
다 보니 체계적인 프로세스가 있었으
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

공유 통한 효율성 제고

이러한 때 각 해외사업장의 관리자들이 꺼낸 것은 본사에서 보내온 비기. 각 팀별 업무
에 관해 자세한 설명을 곁들인 영상이다. 금번 제작한 교육용 표준업무영상은 이처럼 해
외사업장에서 매일매일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의 해결 프로세스를 성우하이텍
본사 직원들이 직접 시연한 자료이다.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세부적인 단계를 나누어 이
해하기 쉽도록 동작을 반복하고 설명하여, 해외 사업장에서 업무 시 교육용 자료로 사용
된다. 가령 프레스 금형 세척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세척장 이동부터 세척 후
금형라인으로 이동하는 6단계를 단계별로 보여주며 설명을 곁들인다. 체계적이고 세밀
한 영상을 통하여 각 주제별 업무에 대한 기초 스킬을 익히는 한편 효율 또한 높일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우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생산관리팀, 영업관리팀, 품질보증팀, 보전팀, 자재지원팀, 보전기술팀에서 각각 소주제를 정하고 주제별 활동을 세분화하여 영상 촬영을 진행하였다. 각 팀에서는 영상 제작 주제 선정 및 촬영을 위한 시나리오 작성, 실제 현장에서의 시연에 이르는 과정 전체에 열정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다.

이렇게 선정된 팀별 소주제는 ▲생산관리팀 크레인 사용 방법 교육(크레인 안전장치), 프레스 금형 교환 준비 & 금형 교환 방법, 프레스 금형 세척 관리 및 점검 방법 등 12건/▲영업관리팀 출하 프로세스, 지게차 업무요령, 용기 검사와 도색, 보수 등 5건/▲품질보증팀 수입 검사 절차, 프레스 공정 검사 절차 등 6건/▲보전팀 OLP 수리 방법, 윤활라인 점검 방법, 정유기 작동 및 점검 방법 등 5건/▲자재지원팀의 재고 확인 및 공용기 회수까지의 전체 프로세스 1건/▲보전기술팀의 로봇 티칭 시 유의사항, 운영 간 유의 사항 등 5건까지 전체 34건이다.

바쁜 업무 와중에도 촬영에 협조해준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표준업무영상 제작 부서 및 제작 건수

부서	생산관리팀	영업관리팀	품질보증팀	보전팀	자재지원팀	보전기술팀	총 건수
건수	12	5	6	5	1	5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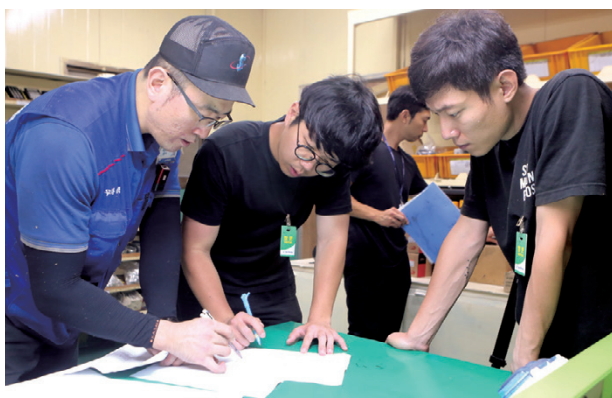
보전팀의 OLP 수리 방법 시연 영상 촬영기

시연_설비기술반 이기도 기사



1

촬영에 관한 간단한 브리핑 및 회의 : 사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촬영 순서에 대해 브리핑하고 기타 의견을 나눈다. 이 과정에서 시연자의 동선과 촬영 순서, 세부 동작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2

전체 촬영과 세부 촬영 : 사전 회의 때 정한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촬영은 세부 단계별로 진행된다. 인물을 중심으로 한 전체 컷과 세부 동작을 보여주는 컷으로 나누어 촬영한다.



3

반복 동작 촬영 :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반복적으로 촬영하여 이해를 돕는다. 분해하여 점검하고 조립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4

추가 촬영 : 영상 편집에 있어 더 필요한 촬영분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 추가 촬영을 진행하거나 시연자 없이 기기를 촬영하기도 한다. 📺



반복된 훈련을 통해

365일 안전한 성우하이텍을!

알립니다!

일사불란 성우인, 훈련도 실제상황처럼!

11월 13일 오후 2시. 서창 본사 및 공장에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갑작스러운 화재 상황 발생! 안내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근무 중이던 성우인들이 질서를 지키며 빠르게 주차장으로 모여들었다. 같은 시각, 화재 시작점에서는 생산관리팀 자위소방대가 소화전을 이용한 화재 진압을 시도하고 부상자 구출을 위한 현장 투입도 속전속결로 진행된다. 그러는 사이, 현장으로 출동한 양산 소방서 대원들이 자위소방대에게서 바통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화재 진압을 시작한다. 사내 자위소방대는 물론 성우인 한 사람 한 사람, 총무안전환경팀이 한마음으로 화재에 대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이날 벌어진 상황은 재난대응 모의훈련 상황. 산재한 업무 와중에도 안내자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훈련을 마무리한 성우인들의 협

현재 시각 지진으로 인해
서창공장 조립동 1층 조립라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SAFETY

SAFETY





동심이 빛났다.

지진이나 화재 등에 대응하여 매년 훈련을 실시하면서도 귀찮고 불편하다고 여기며, 어쩐지 우리와는 먼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재난 대비 훈련은 실제상황 발생 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내고 기업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막중한 역할을 한다. 훈련을 지속해나가는 관리자의 의지와 한마음으로 임하는 직원들의 도움이 중요한 이유다.

**사무실 및 공장 내에 있는 직원들은
속히 가까운 비상계단 또는 통로를 이용,
건물 밖으로 이동하여 집결지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알립니다!

철저한 훈련과 준비가

최고의 안전 대응

SAF



인천 화학물질 공장 화재(6명 중경상), 광주 소음방지 바닥재공장 화재(25억 원 피해), 경기 고양 공장지대 화재(6억 원 피해), 경기 오산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 12월 한 달여간 발생한 크고 작은 사업장 화재들이다. 화재 위험은 현장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며 우리가 긴장을 놓는 순간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화재 사고는 재산 손실은 물론, 큰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평소 화재 상황을 대비한 철저한 훈련과 준비가 필요하다. 911 당시, 평소 재난 상황을 대비하여 반복적으로 훈련함으로써 2,687명의 직원과 방문객 250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모건스탠리의 보안책임자 릭 레스콜라(Rick Rescorla)의 경우는 이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이다.

한편, 이날 훈련은 화재 및 응급 상황을 모의로 설정한 후 ▲재난 경보 ▲대피/집결 ▲대응/복구에 이르는 집체훈련과 재난대책본부 지휘소 훈련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평소 진행하는 재난대응 훈련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 



부산만의 매력을 만끽하다 가을을 수놓은 건각들의 축제

가을이면 두 개 마라톤 대회가 한 달 간격으로 열려
마라톤 동호인들을 비롯한 부산경남시민들에게 환영받고 있다.
광안리 일대를 달리는 '부산바다마라톤'과
낙동강 하구언을 중심으로 열리는 '부산마라톤대회'가 그것.
대회 공식 후원사인 성우하이텍에서도 매년 성우인들이 참가하여
깊어진 가을을 만끽한다.



파란 하늘 아래,
푸른 바다 위를 달린다



부산 바다 마라톤

10월 6일 오전. 이른 시간부터 몰려든 동호인들로 벅스코 광장은 북새통을 이루었다. KNN환경 마라톤이 봄의 시작을 알리는 대회라면, 부산바다마라톤은 가을을 대표하는 대회로서 동호인 및 가족 단위의 참가자들에게 인기가 좋다. 아마추어 선수들의 실력을 겨루는 하프코스부터 연인들이나 친구, 동호인들이 함께하기에 좋은 10km 코스, 가족 단위의 남녀노소가 즐기는 5km로 이루어져 참가자들의 연령대 및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봄과 가을을 대표하는 두 대회 모두를 후원하는 성우하이텍은 매년 성우인들의 참가를 독려하고 있다.

대회가 열린 이날은 청명한 하늘이 얼굴을 드러내어 파란 하늘과 푸른 바다, 광안대교 위를 달리는 1만 5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장관을 연출해내었다. 지난해부터 코스로 개발된 광안리해수욕장 해변로의 풍광도 일품이었다. 성우인들 역시 10km 코스와 5km 코스에 고루 참가하여 가을에 누리는 특별한 시간을 함께했다. 특히 이날 대회에는 미국과 중국, 일본, 캐나다, 영국 등 세계 곳곳에서 온 450여 명의 다국적 마라토너까지 레이스에 참가하여 세계적인 가을 마라톤 축제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부산바다마라톤의 위상을 보여주었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함께하다

부산 마라톤 대회



한 달가량이 지난 11월 10일에는 다대포해수욕장을 배경으로 또 다른 마라톤대회가 열렸다. 부산에서는 유일한 풀코스를 포함한 마라톤대회인 부산마라톤대회가 그것. 대회가 열린 당일에도 다대포해수욕장 앞 도로를 가득 메운 참가자들, 특히나 풀코스에 임하는 참가자들의 열기가 여느 대회보다 뜨거웠다.

거리상 해운대보다 멀리 떨어져 있어 성우인들엔 낯설 수도 있지만 이곳은 색다른 매력을 품은 명소이다. 모래톱이 아름다운 낙동강 하구언, 낙조 명소인 다대포해수욕장, 철새 도래지인 을숙도까지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으로, 꼭 대회가 아니더라도 가족과 함께 나들이 겸 찾아오기에 좋다.

풀코스를 비롯하여 하프코스, 10km 코스로 나뉜 이 대회에 성우인들은 대부분 10km 코스에 참가한다. 19회 대회 때에는 아산성우하이텍 이수승 차장이 풀코스 도전하여 4시간 39분의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다(별을 쏘다 15호 16p 참조).

전격 비교! 부산바다마라톤 VS 부산마라톤대회

부산바다마라톤

가족·연인과 함께 광안대교 위를 달리는 짜릿한 경험!

- 장 소: 수영강변대로, 광안대교 및 광안리해수욕장 일대
- 종 목: 하프코스(21.0975km), 10km/커플런, 5km/슬로우조깅

VS

부산마라톤대회

부산 유일의 풀코스 마라톤 대회

- 장 소: 낙동강 하구언, 다대포해수욕장 일대
- 종 목: 풀코스(42.195km), 하프코스(21.0975km), 10km





100도씨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성우혁신사관학교 3기 수료

물이 끓으려면 온도가 100도씨에 다다라야 한다.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목표한 바를 향한 끝없는 노력, 그리고 이를 위한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지난 2018년 3월 출범한 ‘성우혁신사관학교(SHiOTS, Sungwoo Hitech Innovation Officer Training School)’도 한 단계 한 단계를 밟아가며 성장하고 있다.

혁신은
‘문제 의식’에서
시작한다

세계를 놀라게 한 다양한 제품들은 단순한 의문에서 출발했다.

“날개 없는 선풍기는 있을 수 없을까?

(다이슨 선풍기)”

“마르지 않는 촉촉한 쿠션이 있다면 좋을 텐데.

(아모레퍼시픽 에어쿠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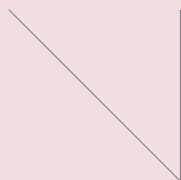
이처럼 문제 의식과 의문은 혁신의 출발점이다. 우리 생활 곳곳에서 만나는 불편함을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개선할 수 있을지 문제 의식을 갖는 것에서 혁신은 시작한다. 성우혁신사관학교의 정신과 같다. 현장을 누비던 베테랑들에게 익숙한 공간에서 문제점을 찾도록 한 것. 이미 설치된 라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처럼 당연히 하던 현장을 다시 한번 세심히 살펴볼 기회를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협업을 바탕으로 창조적인 아이디어로써 보다 능률적인 라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기존의 설비와 방식을 뛰어 넘는 과감한 제안을 통해 고정관념을 타파함으로써 혁신을 이끌어내었다.



물이 끓기 위한 '온도', 그를 위해 필요한 '시간'

다만 단순한 의문이 혁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치열한 고민과 실행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를 보자. 2008년 아모레퍼시픽이 자체 개발한 '에어쿠션'은 현재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제품으로 성장했다. 콤팩트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액상 형태의 파운데이션을 스펀지로 찍어 바르는 세상에 없던 방식. 가루 압착 형태이거나 액체 형태이던 기존 제품과 확연히 다른 혁신 제품이 탄생하기까지 녹록치 않은 과정이 필요했다. 연구자들은 주차티켓에 찍어주는 도장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균일하게 액체를 밀착시키는 스펀지를 만들기로 하고, 인주, 목욕용 스펀지 등 200여 가지로 3,600번 이상 테스트를 했다. 그렇게 80여만 개의 미세구멍을 가진 스펀지인 '셀트랩(cell trap) 기술'이 탄생했다.

혁신은 한두 번의 시도를 통해 얻어지지 않는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기까지는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S H I O T S

10월 8일 성우혁신사관학교 3기생들의 수료식이 진행되었다. 3기생들은 1, 2기생들이 걸었던 길을 착실히 되짚으며 그들만의 도전을 끝내었다. 4월 10일 입교식을 시작으로 5월의 일본 연수와 7월의 중간발표를 거쳐, 10월 수료식에서의 프로젝트 발표까지. 익숙한 현장을 떠나 강의를 듣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한 단계 한 단계를 밟으며 성장했으리라 생각한다. 역량 개발에 힘써준 3기 수료생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며, 6개월간 익힌 바를 현장에 적용하여 현장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리더로서 활약하기를 기대한다. 🇸🇰



우리가 디디는 걸음걸음이 ‘길’이 되기를

성우하이텍 북미사무소

2016년 10월 설립된 북미사무소는

성우하이텍이 진출한 9번째 국가의 사무소이다.

현재 북미사무소는

주재원 2명(박진석 차장, 정영화 차장),

현지 채용 4명(윤혜정 차장, 한대원 차장,

Ken Schraufnagle, 김치영 사원),

컨설팅 업체 고문(Gary Telleck)까지

7명이 팀을 이루고 있다.





자동차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성우의 입지 확립에 도전하다

북미사무소의 일차적인 과제는 글로벌의 중심지인 미국에서 사업성 확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나아가 성우하이텍이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초석이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성우하이텍 북미사무소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비즈니스 확대 및 자동차의 본고장인 미국시장에서 성우의 입지 확립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북미 BIG 3 OE(GM, Ford, FCA)의 미래지향적인 프로젝트 수주를 목표로, 지금은 작은 사무소 형태이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전 세계 성우 글로벌 공장의 영업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북미사무소의 일차적인 과제는 글로벌의 중심지인 미국에서 사업성 확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나아가 성우하이텍이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초석이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북미지점은 본사 소속의 Branch 형식으로 본사와 GM 북미·멕시코 간 거래 시 PM 및 엔지니어 리드로서 역할을 한다. 주요 관리 차종으로는 GM의 블레이저를 시작으로 GM의 두 차종을 론칭시킨 경험이 있다. 13~14시간이나 되는 시차에도 불구하고 고객사의 요청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미국 현지 어느 업체와 견주어도 뒤쳐지지 않는 기술력을 자랑하는 업체로 인정받은 성우하이텍은 신규업체임에도 미국시장의 고객사 및 외주 업체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있다. 또한 GM을 기반으로 하여, 성우 멕시코 법인과 FCA(피아트크라이슬러그룹), VW(폭스바겐)과의 비즈니스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성사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수평적 관계 속에서

'함께'의 가치를 되새기다

북미사무소는 오픈과 동시에 아이템 수주를 시작으로, 안정적인 현지 기술지원 및 고객사 대응을 통해 초기 대비 성우의 위상을 높였으며 고객사로부터 글로벌 성장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 배경에는 한국과 미국의 업무, 문화 그리고 생활양식 등의 차이를 극복하고, 주재원과 현지 채용 직원들 간 상호 존중과 배려를 통한 화합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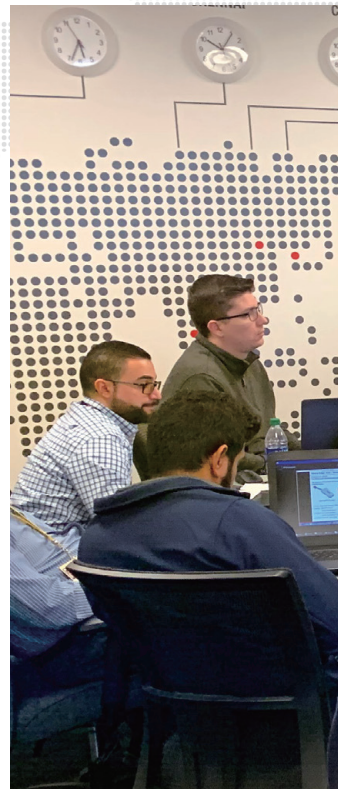
북미사무소는 업무별 특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인력을 기용하며, 직원들 간의 상호 수평적인 의사교환을 통해 합의된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상하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끊임없이 의견 교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다. 이처럼 북미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사람이다. 해외 부서의 경우 언어 및 문화 차이에서 오는 갈등 발생 시 업무 효율 하락이 발생되기 때문에 '상호 동반성장'이라는 목표를 고수하여 협업하고 있다.

최근 직원들은 협업의 가치를 몸으로 느낀 일이 있었다. GM의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및 커버 수주를 위해 2019년 한 해 열심히 달린 북미지점. 그 과정 중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은 웃을 수 있는 에피소드를 소개한다. 2019년 1월의 일이다. 전기차 배터리케이스 및 커버 수주를 위한 GM 측 Technical Review가 예정되어 있었다. 본사와 함께 T/R을 준비하던 중 한국에서 제품을 받아 고객이 직접 보고 만져볼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문제는 트레이(114kg)와 커버(20kg)를 한국에서 성우 북미지점 사무실까지 운송하는 것. 제품은 공항에서 사무실 건물까지는 무사히 도착했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사무실 건물에는 화물 엘리베이터도, 견본품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엘리베이터도 없는 것. 지점 직원들과 T/R을 준비하던 본사 출장자들, 거의 12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직접 제품을 들고 3층까지 오르기로 했다. 그야말로 제품과의 사투 끝에 제품을 무사히 옮길 수 있었다. 직원들은 한마음으로 뿌듯함을 느끼며 박수로 환호하였다. 당시 제품을 옮기는 모습을 보며 놀라던 주위 다른 사무실 사람들의 모습이 생생하다.



북미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사람이다. 해외 부서의 경우 언어 및 문화 차이에서 오는 갈등 발생 시 업무 효율 하락이 발생되기 때문에 '상호 동반성장'이라는 목표를 고수하여 협업하고 있다.

성 우 하 이 텍
북 미 사 무 소



새로운 길을

만들어간다는 자부심

북미사무소의 현지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인 Ken Schraufnagle은 한국에서 생활해본 적 있고 한국인 아내를 맞이했다는 점에서 한국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이해하고 있었다고 한다. 여전히 전문 용어 및 한자어 업무는 어렵지만, 팀워크를 통한 업무 효율의 극대화는 성우하이텍 북미사무소만의 특징점으로서 늘 감사히 생각한다.

“프로젝트 하나하나에 대해 수주부터 양산까지,
팀 전체가 아닌 전사 전체가 협업을 통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성우의 힘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힘들 때 서로 격려하고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해주는 성우 직원들을 보며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성우하이텍 북미사무소는 글로벌 자동차 메카의 도시, 디트로이트에 성우의 새로운 FOOTPRINT를 세울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과 꿈과 비전을 공유하며 함께 키워, 진정한 글로벌 자동차 부품업체로 거듭나는 해가 되길 소망한다.

“서 있는 곳에서 우리가 걸어 나갈 때, 그것이 곧 길이 된다.”

쉽지 않은 한 걸음 한 걸음이지만 혼자가 아닌 성우가족이 다함께 만들어가는 길이기예, 그 앞에 펼쳐질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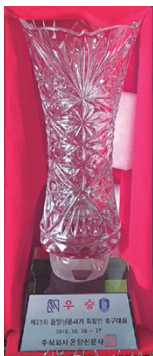
창단 13년, 우승 트로피를 안다

아산성우하이텍 축구단

온양신문사기 직장인축구대회 ‘우승’



아산성우하이텍 축구단(이하 아성FC)이
10월 26~27일 아산신도시물환경센터 축구장에서 개최된
‘제23회 온양신문사기 직장인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아성FC

회장 정기수 기장
부회장 강혜훈 기사
총무 김기섭 기사
감독 김영훈 기사
코치 유경근 기사

온양신문사기 직장인축구대회는 지역 축구 동호인들에겐 익히 알려진 대회이다. 아성FC 역시 창단 이후 꾸준히 대회에 참가해왔다. 그간의 성적은 준우승 한 번과 3위 두 번.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우승에 애도 땀만 그릴수록 조금 더 여기지 않았다. 동료들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워서 하는 활동이니만큼 승부에 목매지는 말자는 생각이었다. 이번 역시 대회 일정이 잡힌 후에도 평소와 같이 한 달에 두 번꼴로 모여서 2, 3시간씩 운동하며 즐기는 데 주력했다. 아성FC의 무기는 이러한 꾸준함이다. 등록 회원의 80% 이상인 15명~20명의 멤버들이 빠지지 않고 주말 모임에 참석한다. 꾸준함 속에 체력을 기르며 합을 맞추었



고 그것이 실전에서 주효했다.

이틀에 걸친 대회 첫날 일정은 예선 토너먼트였다. 지역 내 12개 팀이 참가하는 예선은 세 개 팀씩 4개 조로 운영된다. 예선 첫 경기에서 승리한 아성FC였지만 두 번째 상대는 만만찮았다.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태영테크 아성FC는 0대 0으로 비김으로써 당당히 조 1위를 차지했다. 4강과 결승은 다음 날 진행되었다. 4강 경기를 1대 0으로 마무리한 아성FC 앞으로 승리의 여신이 한 발 다가왔다.

그리고 결승 경기. 상대팀은 한때 명가로 불리던 '다스'로, 팽팽한 접전이 벌어졌다. 균형이 깨진 건 전반 후반부쯤. 상대가 선제골을 터뜨렸다. 아성FC는 한 발 더 뛰었고 채 5분도 되지 않아 동점골이 터졌다. 9년째 아성FC에서 활동 중

인 정기수 기장(조립4반), 팀의 회장이기도 한 그의 동점골로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어진 후반 경기는 '최초의 우승' 대 '명가의 재건', 한 치의 양보 없는 접전 양상이 반복되었다. 승리의 여신이 미소를 보낸 쪽은 아성FC였다. 이렇게 연장에 들어나 싶던 순간, 팀의 총무인 김기섭 기사(조립4반)의 발끝에서 결승골이 터진 것! 동점골의 주인공인 정기수 기장은 이날 동점골과 결승골을 터트린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작년 대회에서 나란히 실수를 했었다며 지난 일을 떠올렸다.

“작년 대회를 말아먹은(?) 우리 두 사람이 올해는 아주 제대로 사고를 쳤습니다. 지난 1년간 팀 동료들 보기에 미안했는데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어요.”

선수 출신 멤버가 한두 명씩 있는 다른 팀들과 달리 아성FC는 오로지 동료들과 공차는 게 좋아서 모인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번 우승이 더 뜻깊고 소중하다. 어렵게 손에 쥔 우승 트로피이니 만큼, 이제 는 이것을 지키는 것이 목표다.

“앞으로 2년 정도는 더 우승하고 싶습니다. 제가 회원들에게 잔소리도 많이 하는데 묵묵히 들어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다치지 말고 즐겁게 운동합시다!”

팀에서는 사무직, 공정책임자 구분 없이 함께 어울린다. 축구란 운동의 특성상 몸으로 부딪히며 과격하게 움직이게 마련인데, 이처럼 함께 땀 흘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끈끈함이 생긴다. 정기수 기장은 이런 동료애와 친밀감이 자연스레 회사일로 이어진다고 하며 더 많은 동료와 함께하고 싶다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전하였다. 🌈



스트라이크처럼 짜릿한 '우승'의 맛!



김민철 팀장(코일센타팀)과 박대근 기사(코일가공반), 여상원 기장(조립1반)이 팀을 이룬
성우하이텍 볼링팀이 펠리아배 직장전 19년 4분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준우승 징크스가 있다 할 정도로 간절했던 우승의 순간, 그 짜릿했던 승부를 들여다보자.

드디어 깬 우승 징크스



14년 3분기 준우승, 17년 1분기 3위, 18년 1분기 준우승, 19년 1분기 준우승. 매년 우승을 목표로 대회에 임하지만 이쯤 되면 준우승 징크스란 말이 절로 나올 지경이다. 지겹게 따라붙는 '만년 준우승' 징크스가 이번에도 발목을 잡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우승을 향한 바람은 간절하기만 했지만 우승 트로피는 쉽게 찾아오지 않았다. 결승 상대는 준결 1위로 올라온 부산시청팀. 최종 결승전 10프레임 중 5프레임까지 경기는 팽팽하게 진행되었다. 그 균형을 깬 것은 중반부 부산시청팀의 실수였다. 이를 발판으로 치고 나갈 기회였지만 성우 팀에게도 위기는 있었다. 김민철 선수의 투구 시 '스플릿(볼링에서 첫 번째 투구에 쓰러지지 않은 핀이 간격을 두고 남는 것)' 위기를 맞은 것. 그러나 위기는 또 다른 기회였다. 이를 안전하게 커버함으로써 분위기가 완전히 우리 팀 쪽으로 넘어왔고, 이후 박대근 선수와 여상원 선수가 차례로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며 우승을 확정지었다.

우승 뒤에는 성우하이텍 팀의 전략이 있었다. 이전 대회들에서 매년 준결승 1위로 결승에 올랐던 성우하이텍. 준결승부터 차례차례 다른 팀들이 올라오기를 기다려 단 한 게임만으로 우승과 준우승을 결정지었다. 그러다 보니 몸이 채 풀리기도 전에 경기를 했고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이와 달리 준결승 2위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까지 최소 두 게임을 하며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리고 몸도 경기에 임하기 적당한 정도로 풀렸던 것. 한두 게임 경기를 하고 최종 결승전을 진행하자는 애초의 작전이 제대로 들어맞았다.

또 다른 도전, 이제는 전국이다



누구 한 사람만이 잘한다고 해서 차지한 우승이 아니었다. 투구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세 사람이 합을 맞추어야 한다. 함께하는 동료에 대한 믿음과 응원, 서로를 향한 파이팅이 상호작용을 하여 팀원 전체가 고루 좋은 성적을 낸 결과이다. 실제로 세 사람은 3년째 같은 대회에 참가하며 합을 맞추다 보니 이제는 표정만 보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챌 만큼 각별해졌다. 부산 MBC 중계진 역시 성우하이텍 팀의 남다른 팀워크에 대해 언급하며 세 사람의 호흡이 특별했던, 3인조 경기의 묘미를 보여주진 경기였다고 평가하였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이러한 특별한 순간들은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준다. 그래서 세 사람은 특별한 취미에 대해 한마음으로 추천한다. 운동 등 취미생활을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도 있고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볼링이라는 경기 자체의 특성만 놓고 보자면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좋다. 현장 직원들과 사무실 직원들이 어울려서 운동하며 친분도 쌓고 자연스럽게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은 특히 좋은 점이다.

3년 만의 부산·경남 지역 대회를 제패한 성우하이텍 팀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



“매번 참가 때마다 준우승을 하다 보니 우승에 대한 염원이 아주 컸습니다. 막상 우승을 하고 나니 기쁜 마음과 함께 계속 이 자리를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산경남 대회에서 우승해보았으니, 다음 목표는 전국입니다.

전국 대회에도 도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어요.

성우인들의 한결 같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이색 체험,
레저스포츠

‘서바이벌 게임’

“돌격~
앞으로!!”



군인들이 치열하게 교전 중이다.

전투의 팽팽한 긴장감과 달리
군인들의 표정은 여유와 즐거움으로 가득하다.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이 현장은

알고 보니 게임을 즐기고 있는

서바이벌 게임필드다.

어릴 적 골목 총싸움 놀이의 추억을 담아

레저스포츠로 자리 잡은 서바이벌 게임은

모바일과 pc로 게임을 즐기는 현대인들을

밖으로 나가 뛰며 사람들과 소통케 한다.

가족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필드로 나와

실사판 배틀그라운드를 즐겨보자.

01.

가족과 함께하는 슈팅 매치
어린이도 안전하게 즐기는

레이저 서바이벌 게임

문의

- 레이저전투사격체험장
창원국제사격장(055-712-0725)
- 출장 레크리에이션 서바이벌 게임
위커뮤니케이션 팀장 채보현
(010-2902-6826)

◎ 모바일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현실로 옮겨놓은 듯한 체험 레포트이다.

서바이벌 게임은 협동심, 단결력, 소통능력, 사회성 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온라인 게임을 쉽게 접하고 즐기게 되면서 야외 놀이가 사라지고 있는 요즘. 아이들을 데리고 모바일게임을 옮겨 놓은 것 같은 레이저서바이벌 게임을 체험해보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기게 될 것이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데,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들이 더 심취하게 되는 건 흔한 풍경이다. 최첨단 레이저 총을 이용하여 포인트로 승패를 결정하는 팀 데스매치, 깃발 뺏기 등의 경기 방식으로 펼쳐진다. 총구 앞과 머리에 쓰는 센서가 상대방이 쏜 레이저를 감지하여 포인트를 내주게 된다. 정해진 히트 수를 당하면 아웃되고 다시 부활하여 게임을 이어갈 수 있다. 제공되는 탄환 수를 소모하면 재장전도 되는 등 룰과 시스템이 안정적이어서 원활하게 즐길 수 있다.

창원국제사격장은 쾌적한 환경의 '레이저 전투사격 체험장'이다. 예약제로 운영되는데, 최소 6명부터 최대 12명





까지 게임에 참여하여 대결 형식으로 게임을 즐긴다.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을 뿐더러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레포츠다. 단, 아이들은 안전을 위해 키 제한(120cm 이상)이 있다.

솔깃할 정보를 하나 전하자면, 레이저 서바이벌 게임은 업체가 회사나 공공기관으로 직접 출장을 나가 레크리에이션 형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일터가 바로 게임 필드가 된다. 직장에서 워크숍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곤 하는데 반응이 매우 좋다는 후문이다.



S U R V I V A L G A M E



TIP

안전수칙

01. 경기장 안에서 뛰거나 점프하지 마세요.
02. 상대방과의 거리는 항상 3m 정도를 유지해주세요.
03. 경기장 바닥에 눕거나 엎드리지 마세요.
04. 장애물 위로 올라가지 마세요.
05. 상대방의 감정을 해치는 행위(욕설)는 삼가주세요.
06. 상대방을 필요 없이 쫓아가는 행위를 삼가주세요.
07. 총과 헤드밴드에 있는 센서는 가리지 마세요.
08. 총은 항상 꼭 두 손으로 잡아주세요.
09. 경기장 내에서 문제 발생 시, 직원에게 즉시 말씀해주세요.



02.

안전한 비비탄을 사용한

에어소프트건 서바이벌 게임

문의

• 팀 그리핀

<http://cafe.daum.net/M.a>

010-2529-2545(부팀장)

• 팀 더병커

<https://cafe.naver.com/thebunkers>

S U R V I V A L G A M E

© 비비탄이 빗발친다. 적군(상대 게이머)이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2인 1조 눈빛을 교환하고 한 명이 엄호 사격을 한다. 그 사이 다른 한 명이 상대를 히트하기 위한 위치로 이동, 같고 님은 사격 실력으로 적을 정확히 히트한다. 짜릿한 이 장면은 영화도 모바일게임도 아니다. 에어소프트건 게임은 안전한 비비탄을 사용한다. 소총수와 전령, 스나이퍼까지 개인의 장비와 특성을 살려 게임에 임한다. CQB(Close Quarter Battle 근접전투) 작전을 펼치고 필요한 전략과 스택(stack : 효율적인 소통과 공격, 수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투대열)을 짜서 전투 시뮬레이션 게임을 이행하기도 한다. 어느 동호인은 팀원과 함께 잘 짜인 전술로 상대를 히트시켰을 때 정말 게임을 즐기는 맛이 난다. 몇 게임을 뛰다 보면 온몸에 땀이 날 만큼 운동이 된다. 이 취미는 많은 매력이 있다. 전적을 쌓아가는 즐거움에 좋아하는 개인 장비를 구매 커스텀도 하고 밀리터리 마니아는 고중에 맞는 장비를 모으기도 한다. 전우(동호인들)와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관련 정보를 나누고 자연스럽게 친분도 쌓는다.

슈팅레포츠는 쉽게 취미활동으로 접하기 어렵다. 사격장에서 실탄사격을 즐길 수도 있지만 개인 장비를 소유하거나 쉽게 즐기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에어소프트건 게임은 실총 디자인의 개성 있는 장비를 보유할 수 있고, 필드에서 대결 형식으로 슈팅을 즐길 수 있으며 색다른 박진감은 덤이다. 동호인을 중심으로 에어소프트건 사격대회도 종종 열린다. 진입 장벽이 없는 건 아니다. 국내 게임 실정에 맞도록 장비가 갖춰져야 한다. 특히 총은 입문자가 정비하고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동호회의 경험자들의 손길이 꼭 필요하다.

동호인의 수가 다른 인기 레포츠에 비해 바 못되지만 우리나라 게이머들의 수준은 매우 높다. 예비역의 힘이란! 신참급에 속하는 한 동호인은 처음 입문했을 때 게이머들이 열핏 무서운 군인 같고 차가워 보였지만 의외로 순수하고 친절하더라며 동호회활동에 만족해했다. 여성 게이머들도 날로 늘어가는 추세이다.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일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렵기도 하지만 장비와 게임을 체험하면 호기심을 보

이게 되는 묘한 매력이 있다. 서바이벌 게임 특성상 동호회 활동이 필수이고 전문적인 장비가 필요하다. 다만 입문자나 게스트 참가자에게는 동호회에서 친절히 장비를 대여해주는 경우가 많다. 장비는 꽤나 고가들이 많으므로 익숙이 앞서 고가의 장비를 먼저 구입하는 것보다 커뮤니티와 동호회 활동을 통해 정보를 알아가고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자신에게 맞는 장비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기본적인 룰과 매너를 지키는 것이 안전하고 즐거운 취미활동이 될 것이다. 🌈

TIP

안전하고 즐거운 게임을 위한 에어소프트건 룰

01. 히트를 당하면 '전사' 혹은 '히트' 외친 후 퇴장
02. 에어소프트건은 레저용품임을 표시하는 칼라파츠 필수(사진 참조)
03. 정해진 탄속, 파워(국내법 0.2J) 지키기
04. 규정에 어긋나는 장비 일체 금지

*참고 : 유튜브검색 [Gunmmelier] 에어소프트 입문자를 위한 가이드



히트!

칼라파츠

촬영협조

- 유튜버 Gunmmelier(건물리에)
- 창원국제사격장
- 위커뮤니케이션



올해도 “성우덕” 덕분에

매년 겨울, 성우인들이 손 걷어붙이고
참여하는 행사가 있다.
올해로 8년째 함께하는
‘겨울애했(애) 희망饌(찬) 김장나누기’ 행사다.
겨울의 초입에 행사가 마련되다 보니
추위에 떨 수밖에 없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추운 날씨에도 끄떡없었다고 하는데
어떤 비밀이 있었을까?



푸근한 연말

예년과 올해 김장이 달랐던 것은 김장행사가 진행된 장소. 매년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앞마당에서 마련되던 행사가 소주동 행정복지센터 지하로 옮겨졌다. 웅상나눔회를 통해 추위에 떨며 김장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행정복지센터 측에서 장소를 제공해주었다. 칼바람 부는 야외에서 추위에 떨던 것을 생각하면 반가운 일이었다. 그 때문일까? 김장 양념을 버무리는 봉사자들도, 보조를 자처하고 나선 성우인들도 몸가짐이 한결 가벼워 보인다.

올해 김장 행사도 주최 측인 웅상나눔회와 희망웅상에서 맡아 진행하였다. 전날 저녁부터 버무려 놓은 양념과 물을 빼 놓은 절인 배추가 한가득. 벌써 8년째 손발을 맞추며



함께해온 까닭에 각자 팀을 나눠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된
다. 본격적인 김장이 시작되자 긴 탁자 양쪽으로 김장 버
무리기조가 자리를 잡고 이어 탁자 위로 절임배추와 양념
들이 배달된다. 봉사자 어머니들 사이로 날래게 움직이는
노란 조끼! 바로 오늘을 위해 손 견여붙인 성우인들이다.
성우인들의 주요 임무는 절여진 배추 배달과 양념장에 버
무려진 김치 포장. 실 새 없이 “배추요!” “양념이요!” 하며
성우인들을 찾는 터라 바빠 움직여야 한다. 소금에 절여진
배추를 옮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터. 김장 시작 한 시간
쯤 지나자 허리는 빠근하고 팔도 아프기 시작한다.

“다들 힘드실 텐데, 잠깐 설까요?
멈추시고 잠깐 허리들 펴고
목도 움직여보세요.”

겨울애(애) 희망饌(찬) 김장나누기

역시 8년차 진행 경험이 어디 가지 않는다. 슬슬 지쳐올 때를 맞춰 허리를 쉬어주니 한
결 가볍다. 그때쯤엔 10시경 시작한 김장도 막바지에 이른다. 예년보다 손이 빨라진 느
낌은 그저 느낌만은 아니었던 듯, 김장 버무리기조의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다. 성우하
이텍의 ‘겨울애(애) 희망饌(찬) 김장나누기’에 매년 참가하다 보니 김장 도사(?)가 되었
다는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들의 말에 테이블 위로 와하하, 웃음이 터진다.

이날 성우인이 함께 만든 김장은 20킬로그램 80박스. 작년까지는 무를 함께 섞어 담갔
으나 배추를 원하는 의견이 많아 전부 배추로만 준비했다. 작은 용달차 가득 김장 박스
를 실어 보내는 것까지 마친 성우인들의 얼굴엔 뿌듯함이 엿보였다. 오늘 담근 김치는
웅상지역 내 저소득 세대, 한부모 세대, 다문화가족 등 14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도종복 부사장(인사정보사업본부장)은 “매년 뜻깊은 행사를 함께할
수 있어 보람되게 생각한다”며 “김장나눔이 지역의 따뜻한 행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



착한이웃 나눔 냉장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또 하나의 큰 기쁨

매주 화요일, 성우인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식당은 여느 때보다 조금 더 분주하게 시작된다.
소주동 착한마을 만들기 일환으로 마련된
“착한이웃 나눔 냉장고”사업에 제공할 국과
반찬을 따로 준비하기 때문이다.



국은 식단에 따라
준비하지만,
반찬은 꼭 한두 가지씩
새로 만들어요~

9:30 반찬 준비 시작

성우인들의 식사 준비가 한창인 서창 본사 6층의 식당. 주방으로 들어서자 이것저것 챙기며 음식 준비에 여념 없던 김노미 대표가 반가운 얼굴로 맞았다. 늘 완성된 반찬들만 봐오다 음식 준비 과정을 보니 그 재미가 쏠쏠하다. 한쪽에 걸린 커다란 솥에 선 조리용 삽으로 김치를 볶고, 샐러드용 두부는 산처럼 쌓여 있다. 대파며 무침용 나물도 모두 대용량. 메인 메뉴인 김치돼지두루치기를 필두로 두부 샐러드, 시래기된장국과 나물무침 등 반찬 준비가 한창인 와중에 오늘은 추가 반찬까지 마련해야 한다. “착한 이웃 나눔 냉장고”를 위해 오늘 특별히 준비된 찬은 아삭이오추무침과 오이무침이다.



12:30 준비된 반찬과 국 포장

“샐러드 같은 건 물러질 수 있기 때문에 매주 한두 가지씩은 꼭 새로운 반찬을 해서 냅니다. 물론 성우인들 드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재료로 정성을 다하죠.”

김노미 대표의 설명이다. 나눔 냉장고에 보낼 반찬은 성우공동모금에서 비용을 지원한다.

11시 30분경부터 시작되는 점심시간이 열추 끝나면 나눔 냉장고에 보낼 국과 반찬을 마무리하고 포장한다. 혹시나 썰 때를 대비해 몇 번씩 꼼꼼히 감싸고 나면 12시 반경. 이때쯤 소주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반찬을 가져가기 위해 회사를 찾는다.





소주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께서
서창 본사를 찾아 준비된 반찬을 옮깁니다.

12:50 소주동 행정복지센터로

국과 반찬을 챙겨 도착한 곳은 서창 본사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소주동 행정복지센터. 착한이웃 나눔 냉장고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이제 막 오후 1시를 지난 시간인데 행정복지센터 안은 벌써부터 사람들로 북적인다. 먹거리 나눔이 진행되는 매주 화요일이면 볼 수 있는 풍경이라고 한다. 먹거리가 배분되는 2시까지는 시간이 남았지만 방문 순서대로 배분되다 보니 이른 시간부터 찾아온다는 설명이다.



13:15 인원별 소분

큰 통에 담아온 반찬과 국을 안쪽 작은 공간에서 기다리던 자원봉사자들이 받아 작은 통에 소분하기 시작한다. 일찍부터 찾아와 음식 나눔을 기다리는 분들을 생각하며 자원봉사자들의 마음이 급해진다. 덩달아 빨라지는 손놀림에 반찬 소분은 금세 끝난다. 이렇게 소분한 반찬과 국은 행정복지센터 내의 착한이웃 나눔 냉장고에 넣어둔다.



새로 준비된 먹음직스러운 반찬들~
쏟아지지 않게 단단히,
꼼꼼히 싸줘야 해요~

자원봉사자들이
각 가정에 보낼
분량에 따라
소분해요.



14:00 기다리던 나눔 시간



그리고 마침내 오후 2시. 복지센터 직원의 안내에 따라 소분한 국과 반찬, 소주동 행정복지센터 텃밭에서 기른 고구마, 주위 사업장에서 기부한 빵과 음료를 한 봉지씩 담아 찾아온 분들에게 하나하나 나눠 주었다. 직접 찾아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는 배달 서비스도 진행한다.

음식 준비 과정부터 그것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전해지는 전 과정을 함께한 오늘을, 많은 성우인과 나누고자 한다. 연신 감사인사를 전하는 봉사자들과 반찬 하나에도 기뻐하는 사람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가진 무게를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낀 시간이었다.

착한이웃 나눔 냉장고,
먹거리 해결이 어려운 저소득가정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MINI INTERVIEW



“성우하이텍 덕분에 매주 뜻깊은 나눔을 실천 중입니다”

소주동 행정복지센터 이현주 동장

착한이웃 나눔 냉장고는 소주동 내 홀몸어르신 및 한부모가정 등 먹거리 해결이 어려운 저소득가정에게 식자재, 반찬 등 먹거리 나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인 텃밭에서 작물을 길러 나눠드리기도 하고 지역 내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매주 뜻깊은 나눔을 실천 중입니다. 성우하이텍에서 제공해 주시는 따뜻한 국과 반찬은 특히나 좋아하십니다. 정갈한 반찬과 국을 먹으며 정성 어린 마음을 느껴서가 아닐까 합니다.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A

머리(He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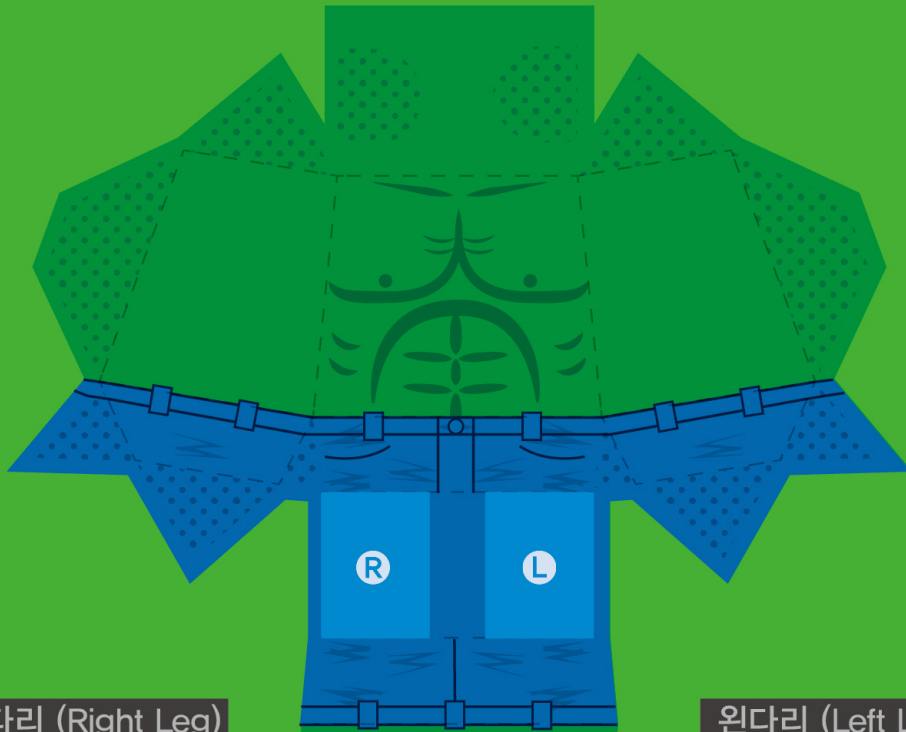
왼팔 (Left Arm)

오른팔 (Right A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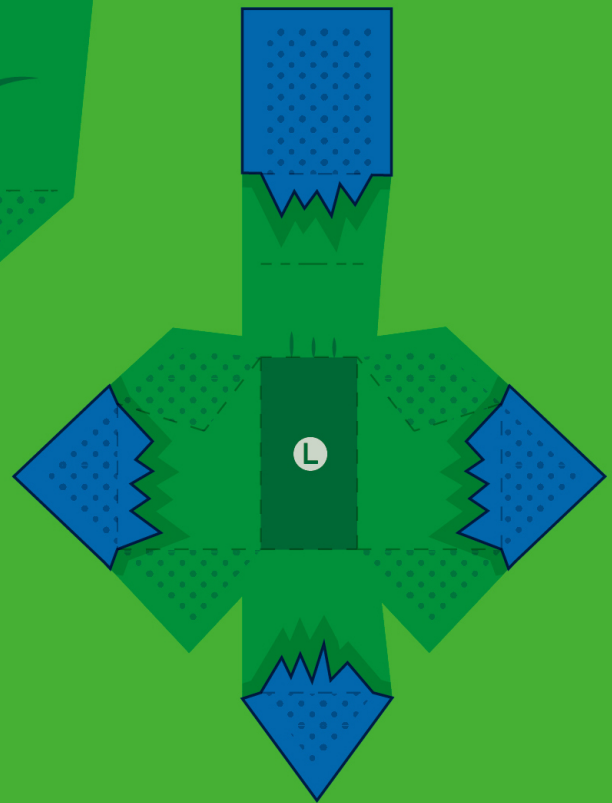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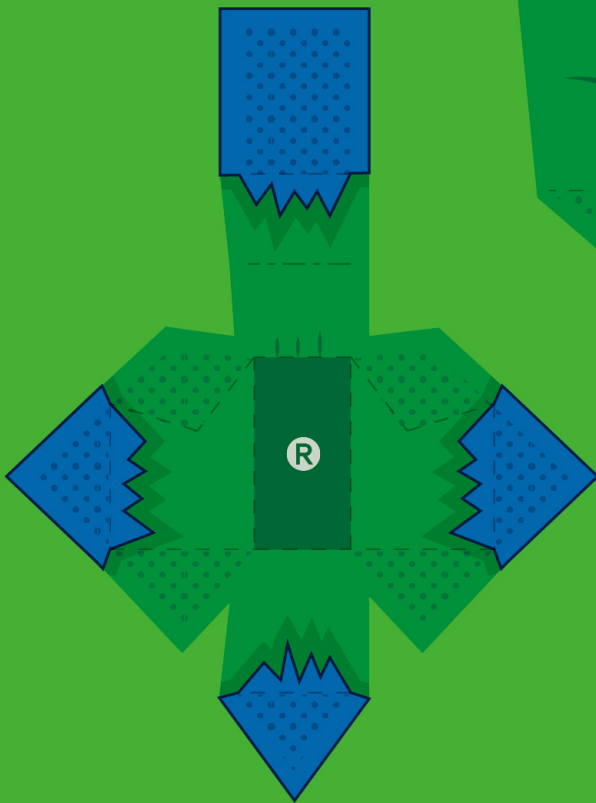


몸통 (Body)



오른다리 (Right Leg)

왼다리 (Left Leg)



손으로 뜯어서 아래 참조사항과 같이 접어주세요.

참조사항 :



산접기



계곡접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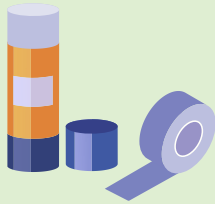
풀칠면

페이퍼토이로 만드는 슈퍼 히어로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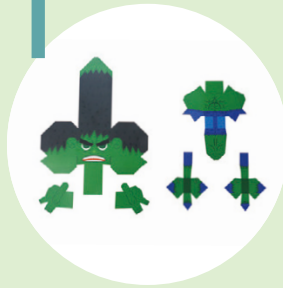
<별을 쏘다> 어벤져스 만들기 마지막을 장식할 주인공은 헐크!
자녀들과 함께, 점심시간을 이용해 팀원·반원들과 함께 페이퍼토이를 만들어보자.
앞서 만든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캡틴 아메리카까지 함께하면 슈퍼 히어로 컬렉션 완성!

만들기 순서



준비물 : 풀 혹은 양면테이프

1



선을 따라 얼굴과 몸통,
팔다리를 떼어낸다.

2



헐크의 머리 부분을
박스 모양으로 접어 만든다.

※ 머리 뒷부분은 풀로
붙이지 말고 남겨둘 것.

3



몸통을 만든다.

4



팔 부분을 만든다.

5



다리 부분을 만든다.

6



팔 부분을 몸통과 연결한다.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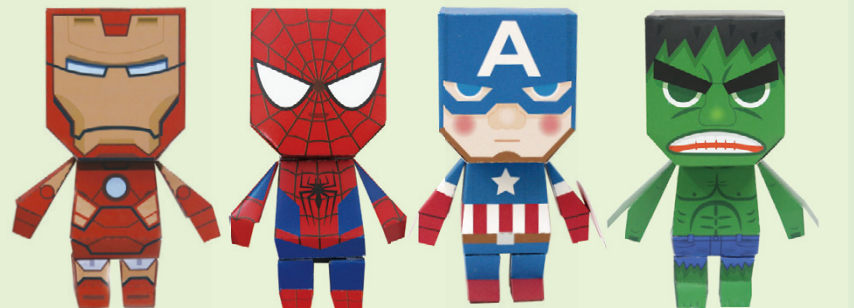
몸통과 머리를
풀로 붙여 연결한다.

※ 이때 머리 부분의 열린 곳을 이용
하여 연결 부분을 꼭꼭 눌러줄 것.

8



다리 부분을 붙이면
내 손으로 만드는 헐크 완성! 🦖



New Technology New Products!

4차 산업혁명, 자율주행, 대체 에너지, 공유경제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려운 글로벌 자동차 시장.
성우하이텍은 축적된 연구를 기반으로 한
신기술 신제품으로 한층 더 도약합니다.



국내

(주)성우하이텍

정관공장, 서창공장, R&D센터, 금형공장, 코일센터, 지사공장, 핫스탬핑, 서울사무소, 수원연구소
(주)아산성우하이텍, (주)성우홀딩스

해외

북경법인, 심양법인, 연태법인, 창주법인, 무석법인, 염성법인, 충칭법인, 인도SHI, 인도SSP, 인도SHAP,
우즈베키스탄법인, 체코법인, 슬로바키아법인, 러시아법인, 독일WMU, 독일WMU B,
멕시코법인, 미국사무소